

정부 '생활 속 거리두기(생활방역) 집단방역 기본수칙(안)' 공개



방역관리자 지정·발열 확인... 정부, '생활방역' 공동체 수칙 발표
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신설... K-방역 전수에 체계적 대응

정부가 4월 22일 '생활 속 거리 두기(생활방역) 집단방역 기본수칙(안)'을 공개했다. 이는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'개인방역 기본수칙(안)' 및 '개인방역 보조수칙(안)'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, 방역관리자 지정과 발열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이날 공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(안)은 ▲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(집단방역의 원리) ▲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▲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▲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▲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.

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'방역관리자'를 지정해 운영하고,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(세부지침)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. 또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(체온, 호흡기 증상 여부 등) 등을 실시하고,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지침을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(<http://ncov.mohw.go.kr>)와 보건복지부 누리집(<http://www.mohw.go.kr>)에 게재하고, 향후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·배포할 방침이다.

더불어 사무실, 대중교통, 음식점, 쇼핑시설 및 결혼·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(세부지침) 역시 부처별로 마련·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.

	기본수칙	보조수칙
개인 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,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④ 건강한 생활습관
집단 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	<p>【추후 공개】</p> <p>각 시설별 세부지침 마련 중</p> <p>*사무실, 대중교통, 음식점, 쇼핑시설 등 시설 및 결혼·장례 등 구체적 상황 고려</p>

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'K-방역'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'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(TF)'를 신설하기로 했다.

특별전담 조직은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해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·조정하는 것으로, 외교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격주로 개최한다.

아울러 주제별 웹 세미나·화상회의·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인 협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 🍷

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(044-202-3805),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(044-200-2295),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(044-202-3804),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(043-719-9081), 외교부 개발협력과(02-2100-8138)

출처 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871764#goList **자료 출처** 정책브리핑 www.korea.kr